



은행나무는 사람이 살기 한참 전부터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만큼 역사도, 이야기도 많은 나무다

완연한 가을, 노란 은행 잎 '제대로' 알자

우리학교 꽃 이야기 (17)

안범철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자

이제 학교에도 완연한 가을이 왔다.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고,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파란 하늘과 함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무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소나무와 은행나무는 알고 있다. 그만큼 흔하고 다른 나무들과 구분하기 쉬운 나무이다.

또 하나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열매를 통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학교에도 은행나무 열매가 짓밟혀 나는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 냄새가 그리 좋지 못해 사람들이 인상을 쓰는 일도 제법 많다.

은행나무 열매는 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과육이 있는 열매는 대부분 동물이 먹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배설을 하여 멀리 퍼트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은행나무 열매 중에서 냄새를 풍기는 부분은 이 과육인데, 은행열매를 먹고 그 씨앗을 배설하는 것은 작은 동물들에겐 어려운 일이다.

일부 학자들은 은행나무가 고생대부터 지구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과거 대형동물 중 썩은 냄새를 좋아하는 과충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룡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래전 은행나무의 씨앗을 퍼트렸던 동물은 당시 커서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나무는 공룡이 선호하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셈이다.

은행 악취, '공룡'이 좋아하는 냄새 공룡 멸종 이후 단 한 종만 남아

현재 은행나무의 자생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종자를 퍼트려 주는 공룡이 멸종되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과거 11종에 달하던 은행나무속의 식물은 멸종하고 지금은 단 한 종인 은행나무만 사람에 의해 키워지고 있다.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인기가 많지만, 지금처럼 가을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오고 길거리에서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은행나무를 유심히 관찰을 해봤다면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떤 나무는 낙엽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은행나무

가 암컷인 나무와 수컷인 나무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히 암컷인 나무다.

이러한 암그루를 가로수로 사용하지 않고, 수그루만 가로수로 사용한다면 은행나무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열매를 맺기 전부터 나무를 키워야 하는데 어떤 나무가 암컷이고, 어떤 나무가 수컷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일단 키워보고 열매를 맺는지 봐야 암수 구별이 됐다.

그런데 몇 년 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은 묵목의 잎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앞으로는 암그루 은행나무는 숲속에 심고, 수그루만 가로수로 사용한다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은행나무는 가로수나 열매를 먹기 위해서 키우기도 하지만 악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주변에 흔하다 보니 아무 곳에 기도 볼 수 있는 나무로 착각하기 쉬운데 은행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주로 자라고 있으며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식물원 등지에서 소수로 재배하고 있는 특이한 나무이다. 이런 은행나무는 혈액순환 개선제로 사용이 되는데 아쉽게도 약성분을 개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

니다. 원료는 우리나라의 은행잎을 사용하지만 약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철저하게 필요하다.

유럽·미국에서는 희귀한 은행 정작 관련 약 '고가'에 수입

은행이라는 이름은 열매가 은빛 살구를 닮았다고 해서 은행(銀杏)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이름으로 인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다. 바로 공자의 행단(杏壇)에 대한 해석이다. 행단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단(壇)을 가리키는 것인데, 행단에 있는 나무가 살구나무인지 은행나무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단의 행(杏)을 은행나무로 해석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는 향교 대부분에는 은행나무가 심겼다. 그러나 중국의 공자 묘의 행단에는 살구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한다.

은행나무는 사람이 살기 한참 전부터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만큼 역사도, 이야기도 많은 나무다. 우리주변의 흔한 나무이지만 결코 흔하지 않은 나무인 것을 알고 은행잎을 물씬 보길 바란다.

▶1면에서 이어짐

동진(東晉)의 왕탄지(王坦之)는 《장자》를 없애버려야 할 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고, 유학이 다시 주류가 된 송명(宋明) 이후에는 이단의 책으로 낙인찍히기도 하였다. 《장자》의 《어부》(漁父)나 《도척》(盜蹠)편에서 유학을 비판한 내용이 유학자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까, 오히려 《장자》가 사랑받은 것 또한 송명 시대부터이다. 유명한 장자 주석서를 낸 송대의 임희일(林希逸)은 유가의 경전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나 사마천의 《사기》 조차 미치지 못하는 위대한 문장이 《장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장자》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비운의 운명을 살아가는 절망한 지식인들의 위안, 예술적 해방의 정신, 도교적 양생의 선구였다.



《장자》는 세속의 풍파에 찌든 지식인들에게는 늘 마음의 위안이 되는 벗이자 지혜의 보고이기도 했다

한 비판, 비운의 운명을 살아가는 절망한 지식인들의 위안, 예술적 해방의 정신, 도교적 양생의 선구였다.

해방의 철학, 자유와 평등의 옹호자, 합리적 자연관, 신비 체험의 대명사로 《장자》는 각광을 받는다. 특히 이데올로기화된 권위주의적 사상에 대한 비판 철학으로 《장자》는 거듭 태어나게 된다.

오늘날 《장자》는 단순히 어느 하나님의 학문 영역에 해당하는 책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미 한(漢) 나라 때부터 문학 이론과 도교(道教)의 성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불교(佛教)가 중국에 수용될 때에는 이론적 가교의 역할도 했다. 더구나 유

안이 편찬한 《회남자》(淮南子), 굴원(屈原)의 《초사》(楚辭) 그리고 《산해경》(山海經)과 더불어 《장자》는 고대 동아시아의 신화와 우주론, 원시 종교 사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 한 자료가 된다.

또한 《장자》에 나오는 갖가지 비유적 이야기들은 후대에 문인과 시인들의 작품 창작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하였으며, 세속의 풍파에 찌든 지식인들에게는 늘 마음의 위안이 되는 벗이자 지혜의 보고이기도 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참여마당

노신애
(국제학과 2014)



장인을 만나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세월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떠나보내는 것이 많다. 사람, 직업, 문화, 자연 등 수많은 것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그 중 많은 것들이 소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곳에선 이런 생성과 소멸의 자연스러운 법칙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명의 사이클이 짧은 시대에 꽃같이 자신의 일을 오랫동안 유지하신 분들, 바로 장인이다. 나와 내 친구들은 여러 장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직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수안보 막걸리의 장인인 장기서 씨는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지만 2대째 가업을 잊기 위해 과감히 충주로 내려와 '수안보 양조장'을 이어가고 있다. 불광대장간의 장인인 박상범 씨는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등재돼 있으며 전통방식을 유지하는 대장장이는 국내 유일하다고 했다. 두 장인이 뿐어내는 밝은 에너지와 유쾌한 농담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였다.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 지는 큰 차이를 만든다

시작이 어찌되든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정해야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한다

장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그들의 자부심이었다. “이 일을 내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는가?”라는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현재 주어진 일을 끝내기 위해 급급한 우리에게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진 지 오래다. 마감 제출 날짜까지 과제를 마치기 위해 바쁘고 조모임 활동에서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갈 지에만 궁리했던 기억에 부끄러웠다. 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갖고 묵묵히 일해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장장이 박상범 씨가 20대인 우리에게 던진 말이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 책만 공부한다. 사회에서 책대로 되는 것은 없다. 스스로 부딪혀 보면서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건지 등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하여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한다. 스스로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일에는 슬럼프가 있다.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 지는 큰 차이를 만든다. 시작이 어찌되든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정해야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한다. 오랫동안 열정을 갖고 세월의 법칙을 거스르며 자신의 일을 해온 사람들처럼,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막걸리처럼, 뜨거운 불에 더욱 단단해지는 시우쇠처럼 우리는 역사가 될 것이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끌어주는 이 없이 목적지를 향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한다. 20대를 먼저 보낸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2015학년도 언론정보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1. 석사과정 모집학과 및 인원

| 구 분 | 학 과 | 전 공 | 모 집 인 원 |
|-----------------|----------|------------------------------|---------|
| | | | 00명 |
| 석사과정 (신입/편입) | 제널리즘 | 신문·잡지 방송 광고 홍보 | |
| | 전력커뮤니케이션 | 스피치·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출판·저작권 | |
| | 문화콘텐츠 |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 |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구 分 | 자 격 | 일반전형 |
|-----------------|---|---|
| 석사과정 (신입/편입) |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① 입학원서(본·대학원 양식) ②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반영원전 사전(재) 원서부착증 |

* 학사과정 편입자의 경우에는 편입 전 학교 성적증명서도 같이 제출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료: 50,000원)

4. 전형일정

| 구 分 | 일 정 | 장 소 |
|-----------|--------------------------|-------------|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4.11.17(월) ~ 11.27(목) | 방문접수 우편접수 |
| 전형일(면접) | 2014.12.6(토) 14:00 | 본교 청운관 613호 |

5. 특전 : 경희문화창작, 공무장학, 언론장학, 모범장학 등

6. 교육의 특징

- 야간 수업 진행으로 직장인 학습 편의 제공

- 사이버 강의 운영으로 친숙한 온라인 학습 환경 제공

7. 입학문의

- 전화 : 02-961-0560~(청운관 6층)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6호

- 이메일 : khs2520@knu.ac.kr

- 웹사이트 : http://knu.communication.ac.kr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